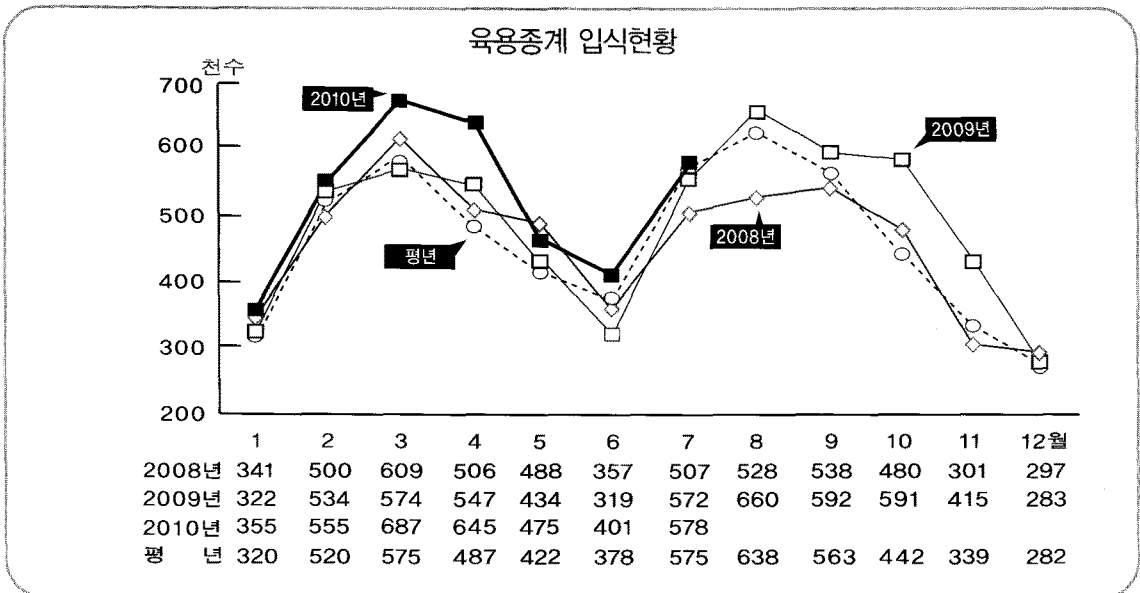


9월 닭고기 수급 전망

1. 육용종계 입식현황

■ 7월 육용종계 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1.0% 증가

- 7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57만8천4백수로 전년동기(57만2천4백수) 대비 1.0% 증가했으며, 이는 평년수준(57만5천수) 대비 0.6% 증가한 수준이다(6월 40만1천3백수 대비 44.1% 증가).
- 7월의 종계 입식수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7월까지의 누계는 3백69만7천수로 전년동기간 누계(3백32만1천수) 대비 11.3%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총 6백23만8천수의 종계가 입식되고 있어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의 종계가 입식될 경우 처음으로 6백만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종계D/B상의 7월 육용종계 사육수수는 6백44만2천수로 전년동월(5백79만9천수) 대비 11.1% 증가했다.



※주 : 평년은 2005~2009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대한양계협회

2. 배합사료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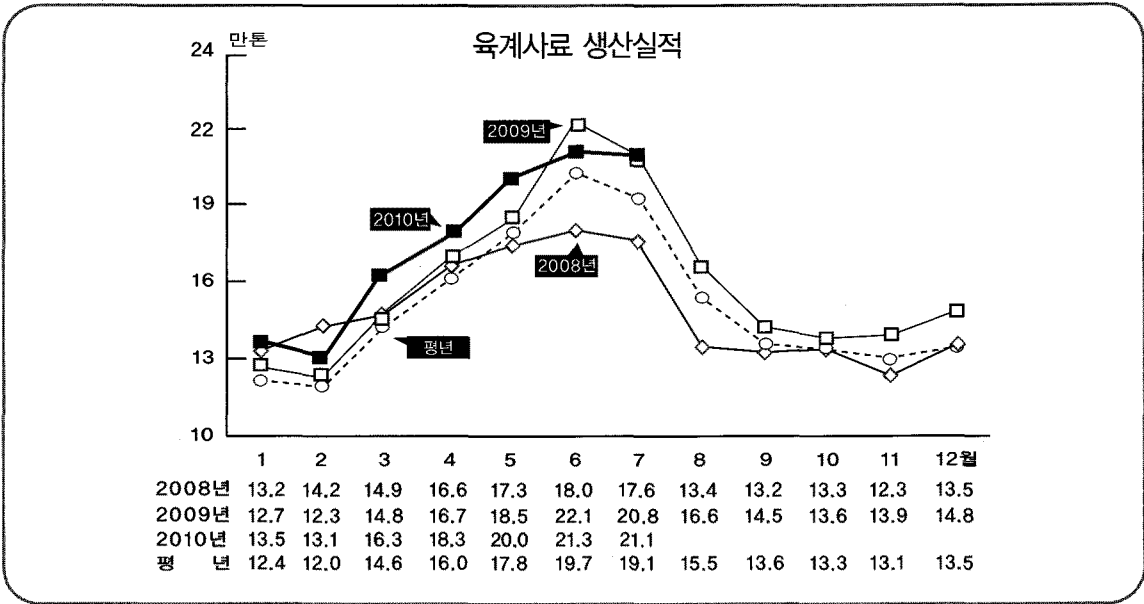
■ 9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증가 전망

- 9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7월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22,481톤으로 전년동월(19,949톤) 대비 12.7% 증가했으며, 전월(22,352톤)에 비해서도 0.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전월대비 7% 정도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수기를 대비한 물량감소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아리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면서 종계노계의 도태가 지연되고 있어 생산잠재력 또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7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210,611톤으로 전년동월(208,417톤) 대비 1.1% 증가했으며, 전월(213,170톤)에 비해서는 1.2%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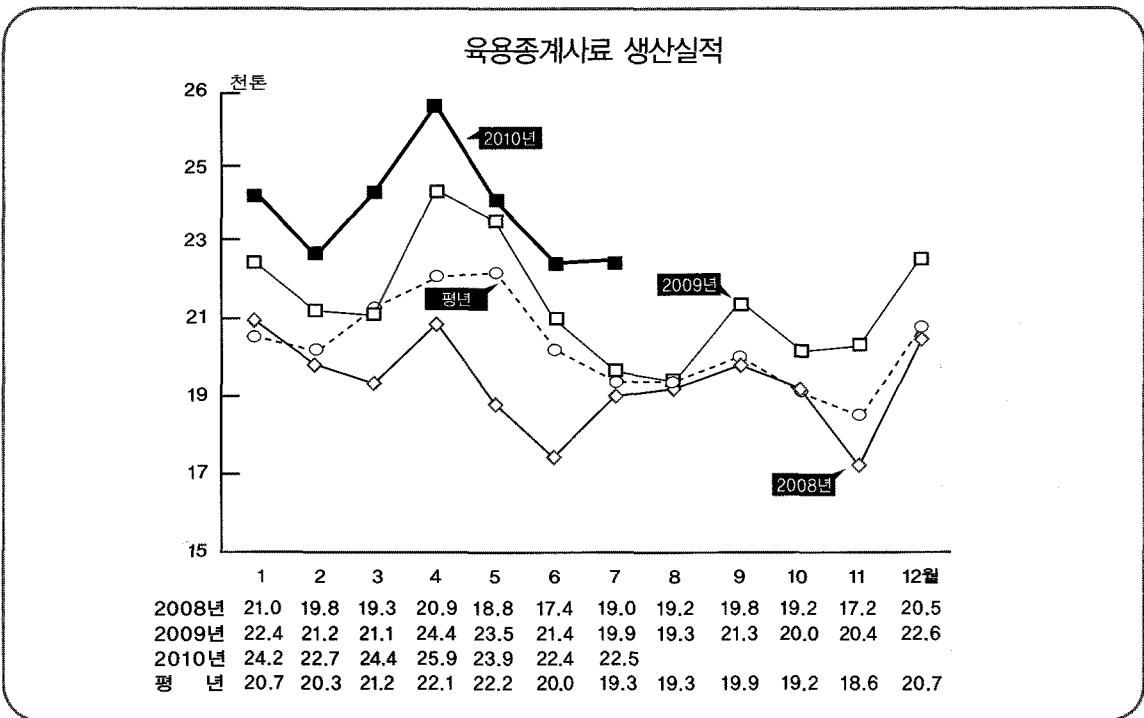
통계

9월 닭고기 수급 전망



※주 : 평년은 2005~2009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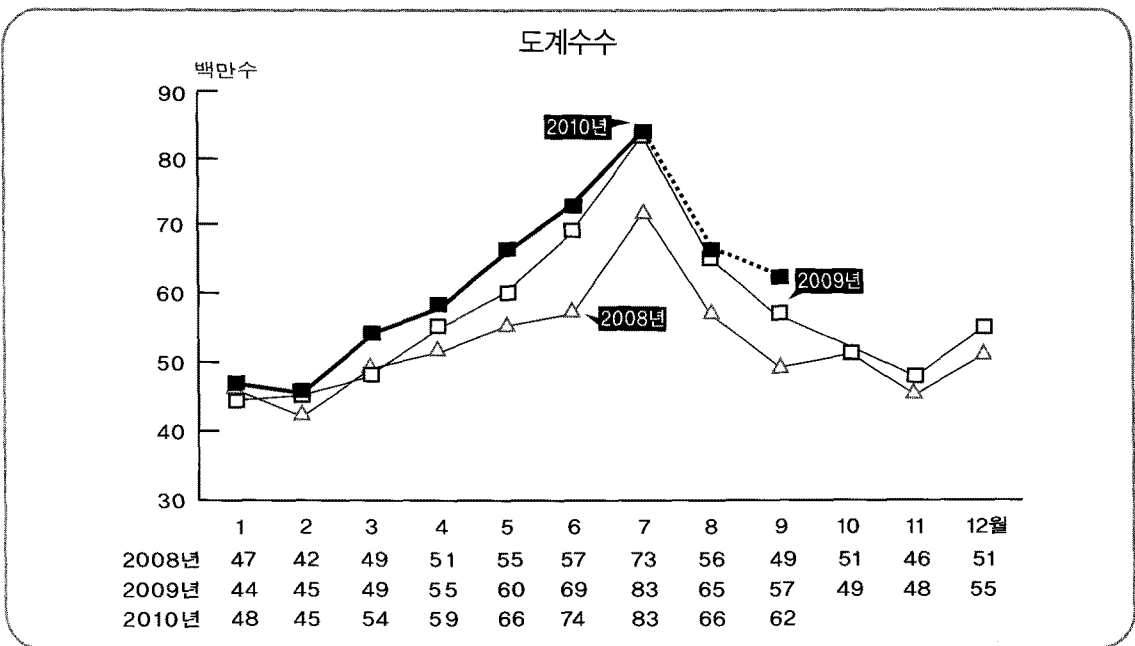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5~2009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3. 도계수수

■ 9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7월의 도계수수는 8,604만수로 전년동월(8,282만수)보다 3.9% 증가했으며, 전월(7,371만수) 대비 16.7% 증가했다.
- 9월에는 육계사육수수가 전년보다 증가하고 생산성도 회복되면서 도계수수는 전년(5,741만수)보다 8% 증가한 6,201만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2010년 8~9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

4. 닭고기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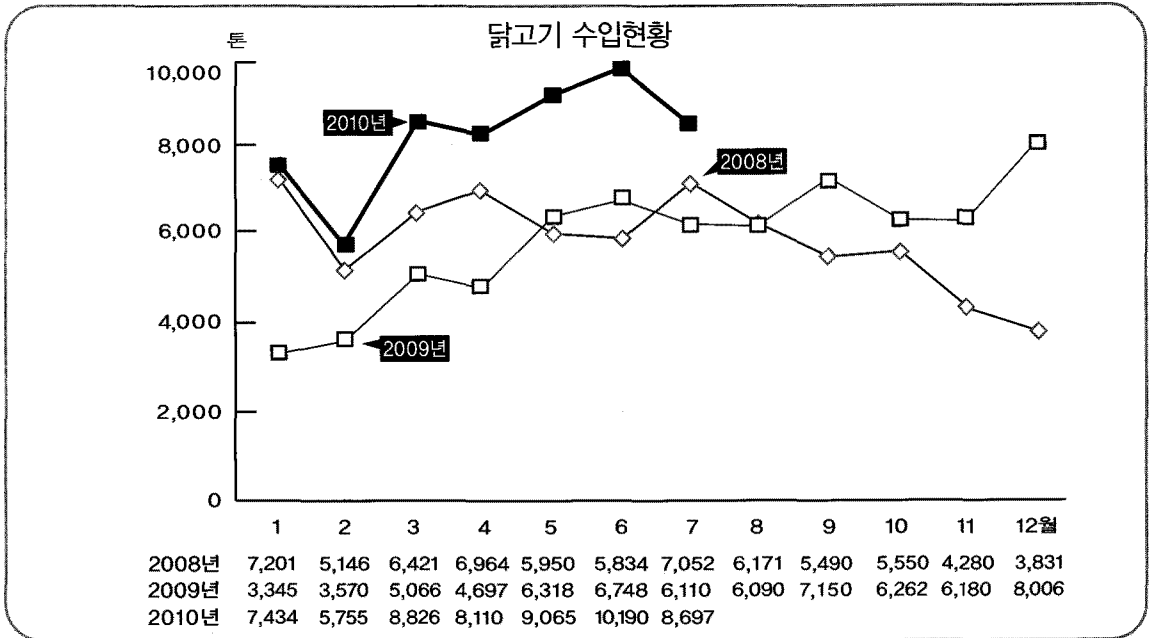
■ 9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증가 예상

- 7월에는 8,697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6,110톤) 대비 42.3% 증가했으며, 전월(10,190톤) 대비해서는 14.7% 감소했다. 검역기준 수입량은 9,140톤으로 전년동기(5,518톤) 대비 65.6% 증가했으며, 전월(11,321톤) 대비 19.3% 감소했다.
- 올해 7월까지의 수입누계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입량에 육박하는 등 동기간 누계대비 96% 정도 수입량이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국내산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과 환율이 안정된 것, 수출국의 닭고기 교역문제 등으로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입량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월에도 수입량은 8천톤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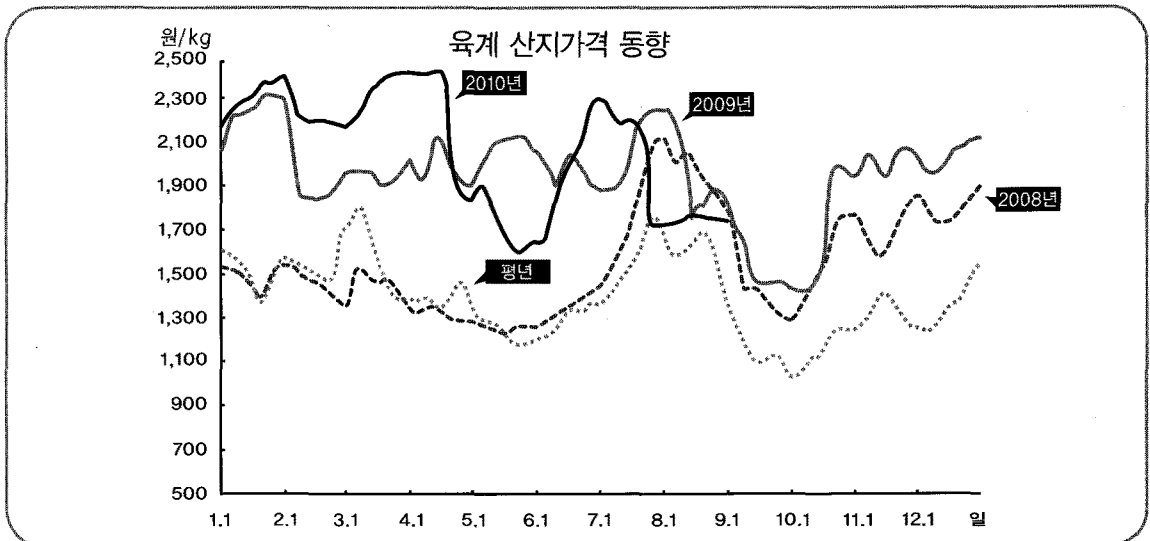
9월 닭고기 수급 전망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5. 가격동향

■ 9월 육계산지가격 평균 1,400~1,600원 전망



※주 : 평년은 2005~2009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 8월에는 초순에 말복이 있었으나 일요일이었고, 휴가피크기간이 겹쳐 수요가 높지 않아 육계 산지가격은 8월 (1~25일) 평균 1,784원을 나타냈다. 하지만 말복이후 늦더위가 계속 이어져 소비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며, 날씨의 영향으로 증체가 늦어지고 생산성이 하락해 비수기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전년 8월 1,838원보다 2.9% 하락, 평년가격 1,542원보다는 15.7% 상승, 전월 2,043원 대비 12.7% 하락).
- 9월의 경우 수입물량 증가, 도계마리수 증가 등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늦더위가 9월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공급량 증가의 일정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 또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 9월의 육계 산지가격은 전월보다는 하락하나 전년과는 비슷하고 평년수준보다는 높은 1,400~1,6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년 9월 가격은 1,510원, 평년가격은 1,171원).


6. 수급자료

〈육계 및 삼계 입식·비축현황〉

(단위 : 천수)

기간	육계						삼계					
	입식			비축			입식			비축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7. 12 ~ 7. 18	7,304	8,181	112.0%	1,775	2,645	149.0%	2,108	2,110	100.1%	492	891	181.1%
7. 19 ~ 7. 25	7,275	8,187	112.5%	1,755	2,960	168.7%	2,010	1,760	87.6%	575	837	145.6%
7. 26 ~ 8. 1	7,260	8,057	111.0%	1,860	3,305	177.7%	1,874	1,635	87.2%	761	79	94.5%
8. 2 ~ 8. 8	7,080	8,255	116.6%	1,982	3,134	158.1%	1,620	1,495	92.3%	975	653	67.0%
8. 9 ~ 8. 15	6,840	8,109	118.6%	2,101	3,038	144.6%	1,591	1,395	87.7%	980	630	64.3%

7. 결론

- 9월에는 종계 사육수수 증가에 따라 병아리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입량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나 늦더위의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지가격은 1,400원 ~1,6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무더위의 영향으로 생산성 회복이 늦어지고 종계계군이 혹서피해로 병아리 공급량이 감소할 경우 시세는 전망치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산량 증가폭이 커서 생산성이 떨어져 있는 종계계군 또는 종계노계의 도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시세변동요인

구분	생산(공급) 측면	소비(수요) 측면
인상요인	- 무더위로 인한 종계계군의 생산성 저하와 늦더위로 인한 증체지연, 공급량 감소 - 냉동비축 재고 감소로 비축여력 충분	- 늦더위로 인한 꾸준한 소비 유지 - 배달용치킨 원산지표시 제도 확대 시행
하락요인	- 종계 및 육계수수 증가로 생산량 증가	- 추석을 전후한 수요감소 우려